신안 '1道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 '탄력'

세계조개박물관 '공립 1종 전문박물관' 등록
전세계 1만1000여점 조개·고둥 표본 등 전시

신안군은 세계조개박물관이 공립 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천사대교 끝자락 자은도 해변에 건립된 세계조개박물관은 975㎡(135평)의 백합조개를 닮은 건축물에 전 세계 1만1000여 점의 조개·고둥 표본과 아름다운 조개 공예작품이 전시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 8월 세계조개박물관 개관 이후 학예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시설물을 보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은 이번 세계조개박물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환경 보호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는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개의 뮤지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계화석광물박물관 등 8개소가 완공됐다.

백합조개를 닮은 세계조개박물관.

지난 5월 저녁노을미술관이 신안군 1호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된데 이어 세계조개박물관이 1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조개박물관은 기증자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며 "앞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 전시는 물론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계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안 자은도 세계조개박물관이 공립 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됐다. 박물관 내부 모습. 〈신안군 제공〉

1004뮤지엄파크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조개박물관의 박물관 등록을 기념해 유료 관람객 1004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조개박물관이 위치한 1004뮤지엄파크는 50ha(축구장 70개 면적)의 면적에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개관 이후 1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선원 교육 받으러 부산 안 가도 된다

목포에 해양수산연수원 준공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서남해권 선원들의 안전 교육을 담당할 목포분원을 준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 죽교동에 건립된 목포분원은 연면적 3575㎡, 지상 3층 규모로 국고 132억원이 투입됐다. 소화훈련장, 해양안전훈련장 등을 갖췄다.

분원에서는 2021년부터 기초안전교육 등 1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연간 80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분원이 운영을 시작하면 서남해권 선원들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산까지 오가느라 겪는 불편이 해소된다.

전국 여객선의 57%인 189척(2019년 말 기준)이 목포, 여수, 군산, 대산, 제주 등 서남해권에서 운항 중이며 그동안 이 선원들은 부산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왔다.

이동재 연수원장은 "앞으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선원 교육훈련을 통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목포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어린왕자, 보라빛 기다림

홍콩 유명잡지와 독일 최대 위성방송에 소개된 신안군 안좌면 반월·박지도 '퍼플바다정원'이 새하얀 눈에 덮여 몽환적이다. '퍼플바다정원'은 지난 8월 퍼플섬 선포 이후 100일만에 10만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문 브릿지(Moon Bridge)를 통해 반월도~퍼플교~박지도까지 7.6㎞의 해안산책로와 박지산(4.4㎞)은 행정안전부 '걷기 좋은 곳'으로 선정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국내 첫 해조류 바이오생산시설 구축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해조류 바이오 생산시설 구축에 나섰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2021년 신규 국비 지원 사업인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내년도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다.

3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할 이 사업은 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을 위한 바이오 원료 소재 공급체계 구축사업이다.

해양바이오 기업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돼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원료 소재 확보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에서 바이오 원료 소재 공급시설 지원이 절실하다.

해조류는 육상 자원과는 다르게 탈염, 중금속 제거를 위한 처리 시설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해조류를 전문으로 한 원료소재 생산시설이 없어 해양 바이오 산업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가공 산업에 머물러 있는 해조류산업이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으로 해조류의 고부가치화와 지역 내 다양한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해 2023년도에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준공을 목표로 한다.

완도군은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110억원을 투자해 국내·외 기업연구소 10개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촉진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사회복지시설 3곳에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진도군은 최근 군청앞 광장에서 이동진 군수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을 지원받는 시설은 진도지역자활센터(트럭), 서경노인복지관(승합차), 진도군기초푸드뱅크(냉동탑차) 등 3곳이다.

이동진 군수는 "이번 차량 지원은 진도군민들의 기부와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복지사각지대 근로자를 발굴하고 지역자활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1억7000만원을 모금해 공동모금회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긴급지원, 주택 개·보수 등에 사용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6
총계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 2021. 1. 18(월)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www.kwangshin.ac.kr